**한민족 최고의 발명품 – 한글**

지난 일요일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을 구성하는 우리 민족의 최고의 발명품 ‘한글’ 이 탄생된 한글날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글이자 말인 한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나친 비어와 속어의 물결에서 그 아름다움이 자꾸 바래지고 있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글의 탄생**

1443년 세종25년 완성되어 1446년 음력9월에 반포된 한글의 원래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로 ‘훈민정음’ 이었습니다.

이후, 1913년 주시경 선생이 그전까지 조선시대 뿌리깊게 박혀있던 사대사상으로 인해 한글을 업신여기는 단어로 사용되던 통용되던 언문(諺文)·언서(諺書)·반절(反切)·암클·[아햇글](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4873)·가갸글 이라는 말 대신 ‘한글’ 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표의문자인 한문과 다르게 글자의 의미와 상관없이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인 한글은 하나의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는 음소문자이면서 음절단위로 적는 음절문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초성 17자, 중성 11자 , 모두 28였으나, 그 중 초성의 ‘ㅿ’，’ㆆ’，’ㆁ’, 중성의 ㆍ(아래하)가 폐기되면서 현재까지는 24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훈민정음 소개한 책[훈민정음]은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다가 1940년 7월 경북 안동군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 간송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

한글과 한자는 대표적으로 표음문자와 표어문자라는 것입니다.

BC 2세기 위만조선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한자는 대표적인 표어문자로 하나의 단어가 일정한 의미를 지닌 문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베트남 등에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 사용 또는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957년 교육부에 의해 상용한자 1,300자가 지정되었으며, 이후 1972년 8월 1,800여 자가 중등교육용 기초한자로 선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상용되고 있는 문자의 수가 무려 3,500자인 한자는 그 형태와 의미를 외어야 한다는 점에서 익히기 어렵다는 단점과 소리가 같아도 표기가 틀리 의미의 혼동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한자의 수는 국가별로 상이함)

이에 반해 글자의 의미완 상관없이 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표음문자인 한글은 비록 소리가 같은 상이한 단어의 의미 구분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적은 수의 표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익힘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의 의미**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926년 11월 4일 민족주의 국어학자 단체인 조선어연구회에 주축으로 세종대황의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가지고 이날은 제 1회 ‘가갸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적힌 1446년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 기록에 따라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날인 29을 한글날로 정한 것이지요.

이후 1927년 조선어연구회 기관지 <<한글>> 이 창간이 된 후 명칭을 ‘한글날’로 고쳤으면, 1932년엔 양력날짜로 환산, 10월29일에 기념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7월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어, 책속 정인지 서문에 반포일이 9월 ‘상한(上澣)’ 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상순 끝날인 9월10일을 양력으로 환산, 지금의 10월 9일 한글날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글날은 1946년 한글반포 500돌을 맞이함과 동시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기념되었으나, 1990년 경제단체의 요구로 공휴일이 조정되면서 국군의 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관련 단체와 지역에서 기념행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경일, 법정공휴일로 환원해야하는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언어학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전세계 언어를 연구하여서 각 언어의 독창성, 구조, 원리 그리고 언어사용의 편리함과 같은 여러항목의 비교 분석을 통해 뛰어난 언어들을 뽑았는데, 그중 우리의 한글이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89년 6월에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을 제정하여,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문맹퇴치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정신을 드높인 것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97년 10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훈민정음>을 등록하였습니다.

이 같은 우수한 한글이 정작 우리에겐 외래어와 욕설, 비속어 등으로 상처받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되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바른 말과 글로 우리의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TIP.**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북한에서도 역시 한글날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훈민정음이 쓰인 1443년 음력 12일을 기준으로 1월 15일을 조선글날로 제정해서 기념을 한다고 하네요.